

GRACE 선교소식

2025년 4월 GMI-GKC 선교사 현황: 63개국 337명 (자체 파송 75%)

2025년도 세계선교 마무리를 향해!

GMI 총재 한기홍 목사

저는 이번 주간 일천번제 새벽예배를 드리며, 그레이스타임 말씀 범위인 열왕기하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일하고 계심을 느끼며, 더욱 주님 앞에 부르짖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여러 위기와 혼란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으로 인해 무역전쟁의 조짐이 보일 정도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 60일 안에 새로운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는 엄중한 상황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북한군의 개입으로 인해 더욱 장기화되며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은 여전히 하마

스와의 분쟁으로 중동 전역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레바논 남부, 시리아 국경지대, 이란 중부까지 전쟁의 불씨가 번지고 있어 중동지역은 매우 불안정한 상황입니다.

전쟁과 분쟁으로 고통받는 나라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많은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또한 미국 내에서는 불법체류자들의 거주가 불안정해졌고, 영주권자들 중에서도 해외 입국 시 전과 경력이 발견되면 추방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인사회도 여러모로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고 있으며, 단기선교 또한 위험 지역으로 지정된 나라들(쿠바, 베네수엘라 등)은 당분간 보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선교정책과 전략을 세우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시대의 흐름을 분별하며 분명히 깨닫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께서 문을 열어주실 때 부지런히 선교하고 복음 전하는 일에 힘써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한기홍 목사님 사역일정

- 터키 TD 및 유럽성회: 4/20-5/3
- 파리 은혜교회 27주년: 4/27
- 한국 및 대만사역: 5/18-5/28
- GMI 사랑의 불꽃 1기: 5/25-5/28
- JAMA 중보기도 Conference: 6/2-6/5

목사님의 사역 일정들 가운데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충만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주님은 지금도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변함없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국

정00 / 전00 선교사

TD

저희는 델리에서 매년 열리는 TD를 참석하기 위해서 두달반 전부터 기차표를 예매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인도 힌두 최대의 축제인 쿨부 멜라로 인해 많은 인파들이 한꺼번에 몰리는 바람에 기차표를 구하지 못하고 입석표를 간신히 구해서 델리를 가는 시간이 30시간이나 걸려서 델리에 힘들게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도착한 사역자들은 힘들었던 긴 여정을 잊어버리고 TD에 참석하면서 시간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시간들이 지나갔습니다.

그중에 한 성도 중에 얼마 전에 백혈병으로 아

들이 죽어서 슬픔에 빠진 리사 문돌이라는 분이 성찬식에 참석하면서 주님이 그의 마음에 음성을 주시기를 내 사랑하는 아들은 나와 함께 있다는 그 음성을 듣고 주님이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정말 사랑하시고 주님이 살아 계심을 확신하는 귀한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TD 때의 간절한 기도제목

저희 성도리더들과 사역자들의 간절한 기도제목은 힌두교 가정에서의 핍박 속에서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가족 구원을 위해서 중보 기도 요청을 하였고 또한 무슬림 가정에서 믿는 성도들은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라는 것을 담대히 일가 친척들에게 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면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이들의 기도가 하루속히 응답 되기만을 간절히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제목

1. TD 때에 받은 은혜와 열정을 잊어버리지 않고 가족 구원을 위해서 사역지에 있는 영원들을 위해서 계속 중보 기도하면서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2. 3월부터 다시 개학하는 교사 강습회에 많은 교사들과 사역자들이 열정적으로 사역에 동참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3. 각 지역 교회와 가정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4. 저희 가족들의 영육간의 강건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탄자니아

정현우 / 정슬기 선교사

현지 목회자들과 함께한 3일간의 은혜의 시간 3월에는 저희 선교센터에서 정기적으로 진행하는 현지 목회자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3일 동안 진행된 이번 세미나에는 약 350명의 목회자 부부가 함께 참석해 주셨습니다. 각 분들에 나누어 드리려 준비한 명찰이 모자랄 만큼, 많은 분들이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셨습니다. 참석하신 분들 대부분은 시골 지역의 교회에서 오랜 시간 묵묵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해오신 분들입니다. 남편 목사님과 함께 사역의 현장을 지켜오신 사모님들 또한, 말씀과 기도로 교회를 세우는 귀한 동역자이기에 이번세미나는 모든 참석자에게 쉼과 회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세미나는 매일 오전과 오후에 말씀 중심의 강의와 실제적인 사역 나눔으로 구성되었고, 식사와 교제 시간에는 서로의 삶과 사역을 나누며 깊은 위로와 격려가 오갔습니다. 작은 섬김이었지만,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다시 세우시는 은혜를 부어주셨으리라 믿습니다.

세미나 마지막 날에는 참석자들을 대표해 한 목사님께서 진심 어린 감사의 메시지를 전해 주셨고, 그 따뜻한 마음이 저희에게도 큰 격려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이 세미나가 지역 교회들의 든든한 동역의 자리가 되고,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거룩한 연결점이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음이의 수술 일정과 감사의 소식

이음이의 수술은 아직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원래는 4월 7일에 수술을 받을 예정이었지만, 담당 교수님의 병원 이직으로 인해 새로운 병원에서 다시 일정을 잡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고, 빠르면 8-9월, 현실적으로는 10-11월쯤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일정은 5월 이후에나 정해질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일단은 한국행 항공권도 9월로 변경하게 되었고, 현재는 탄자니아에 머물며 장기 체류를 위한 비자 발급 과정을 진행 중입니다. 복잡한 행정 절차와 여러 상황들이 있지만,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심을 믿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이런 변화 속에서도 이음이가 탄자니아의 환경과 유치원 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새로운 언어와 낯선 문화, 다양한 사

람들 속에서 처음에는 낯설어했던 모습도 있었지만, 지금은 하루하루 밝은 모습으로 등원하며 친구들과도 잘 어울리고 있습니다.

이음이의 웃음과 일상 속에서 저희는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마음을 붙들고 계시다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앞으로의 의료 일정도 주님의 선하신 손길 안에서 잘 준비되고, 이음이가 수술 전까지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상을 세워가는 기도

- 규칙적인 생활 안에서 드리는 예배

요즘 저희 가정은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더 깊은 예배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시작은 다름 아닌 규칙적인 생활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고, 함께 식사하고, 아이를 돌보며,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여는 이 흐름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루를 귀하게 여기고 살아가는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때때로 사역이나 외부 일정이 많아지면 일상의 흐름이 무너지기도 하지만, 그럴수록 가정의 중심을 다시 세우고 하루하루를 정돈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큰 은혜임을 깨닫고 있습니다. 이 작은 일상의 쌓임이 결국 사역을 감당하는 힘이 되고, 가정을 지키는 울타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주어진 새 하루를 감사함으로 맞이하고, 가정 안에서 먼저 예배자로 서며, 말씀과 기도로 평안을 지켜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다시 한번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확신하고 계속 순종할 수 있음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M국

한OO / 김OO 선교사

동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8일 미안마에 강도 7.7의 큰 지진이 있었습니다.다행히도 저희가 있는 양곤은 진원지와 멀리 떨어져 있어서 큰 피해가 없었습니다. 군부는 피해가 심각한 6개 지역에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국제 사회에 지원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더불어 양곤도 지진으로 인해 당분간 정전이 불가피합니다.



호산나교회

성탄절행사 이후에 주일학교가 부흥해졌습니다. 주일마다 20명 정도의 아이들이 예배하러 나오는데 이 추세가 계속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이들은 노래하고 춤추는 것이 좋아서 더불어 간식을 주니까 오지만 그 모든 것을 합력하

여 선을 이루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저 또한 빵 얻어 먹으려고 주일학교에 갔었습니다. 그 이후 30살이 되어서야 교회를 다시 찾았지만 하나님 살아 계신다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던 것은 주일학교 영향 때문일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열정적으로 찬양과 율동을 가르쳐 주는 여선생님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이 선생님이 계속적으로 와서 헌신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기존에 나무로 지었던 부엌이 낡아서 파이프와 컴포짓으로 새로 세웠습니다.

New 협력교회 탐방

사역 지경을 넓히기 위해 집에서 1시간 30분 정도 거리에 있는 모빅을 기도하며 갔었습니다. 그리고 다다른 곳이 장년이 20명, 아이들이 30명 정도 모이는 쉼마 야라는 교회였습니다. 무엇보다도 넓은 교회부지가 눈에 들어왔고 아울러 주일학교 선생님들의 열정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우선 계속 교류하며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진 후에 어떻게 협력할까?를 모색할 계획입니다. 저희는 새로운 사역들을 기도하며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족한 종들에게 갈길을 밝히 보여 주시기를 기도해 주세요.

그룹홈 사역

3월부터 5월까지의 여름방학입니다. 방학이

되면 시간 활용이 문제인데 10명의 아이들을 다 취미활동을 시킬 수도 없고 그래서 가끔씩 더위도 식힐겸 수영장에 갑니다. 제가 예전에 수영강사도 한 경험이 있어서 갈 때마다 수영을 가르치는데 소질이 있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한글학원

아내의 한글학교제자인 선희가 외국인 국비장학생(GKS) 석사 과정 1차 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이제 한국교육부의 2차 심사와 지원한 대학교의 최종 승인의 과정들이 남아 있는데 합격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선희는 성균관대와 부산대 그리고 경북대 SI학과에 지원을 하였습니다. 또한 저희들을 만난 후 3년째 예배에 출석하고 있는데 아직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국

남OO 선교사

이곳에서 함께 사역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경험하는 요즘입니다. 멀리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는 덕분에 힘을 얻습니다.

2025년이 이렇게 깊이 와 있다는 것이 실감나지 않습니다. 지난 연말부터 기말고사, 성탄 행사, 새 학기 준비로 분주한 나날을 보내다 보니 새해를 맞이한 것도 잊고 지냈습니다. 이곳에서는 색의 축제 홀리(Holi)를 보내고, 4월 밀 수확 철이 되어야 비로소 한 해가 바뀌었음을 실감하곤 합니다. 시간은 참 빠릅니다. 마치 꽃 향기처럼 잠시 머물다 스쳐 지나가는 듯합니다.

다가오는 4월에는 학위 수여식과 졸업식이 있습니다. 특히, D자매, K자매, M자매가 졸업 후 새로운 길을 걷게 됩니다. 고향이 아닌 낯선 곳에서 사회인으로, 전도자로 살아가야 하지만,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지키며 은혜 가운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계신 곳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새로운 신입생들이 언어 장벽을 넘어 힌디어와 영어를 잘 익혀 학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2. 학생들이 건강하고 평안한 가운데 기숙 생활과 학업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3. BPU(Biblical Puritan University)운영하는 한국 선교사님 가정과 신학교가 더욱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지도록

4. 언제나 기쁨과 감사로 주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5. 사역에 필요한 재정이 채워지고, 선한 만남의 축복이 있도록

늘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멀리서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함께 걸어가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시길 기도합니다.



인도네시아

기OO 선교사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13주년 기념예배

협력하는 현지 단체가 13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2월 2일 양육과 예배 공동체에 참여하는 학생들, 장학 학생들과 부모님들, 기도 동역자들, 종교 관련 부서 관계자들이 모여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시간이었고 단체의 비전과 미션을 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2025년 선교를 향하여 집중하고 있는 단체의 동기를 확고히 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기념예배를 드릴 장소와 음식, 기념품 등의 재정을 정확하게 채워 주셨다는 현지 사역자의 나눔이 감사한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계속해서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이 단체가 사용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3분 복음 암송 대회

어린 시절부터 기독교인으로 주민등록상에 기재되어 있으나 무엇을 믿는지 잘 모르는 학생들에게 공동체에서 복음의 내용의 의미를 나누고 외우는 시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암송이 쉽지 않기에 동기부여를 위해 2월 16일에 복음 암송 대회를 치렀습니다. 참여한 모든 학생들이 복음의 내용을 잘 이해하고 암송하였습니다. 이후 매주 예배 시간에 한 명씩 암송하여 참여하지 못한 친구들도 복음의 내용을 듣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친구들이 암송에 그치지 않고 암송한 내용으로 믿는 바를 언제, 어디서든, 누구에게라도 지혜롭게 전할 수 있는 기초가 되기를 기도해 주세요.

비전 트립

2월 22일 다른 도시로 몇몇 학생들과 함께 비전 트립을 갔습니다. 주변의 12개의 교회에서 120여명의 아이들이 참석하였습니다. 인형극으로 말씀을, 글 없는 책으로 복음을 나누고 찬양을 배우고 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이

들이 있지만 주일학교를 운영하기에 어려운 교회도 있기에 자주 이런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는 지역 교회 목사님의 말씀에 현지사역자와 함께 2-3개월 한번씩 정기적으로 다른 도시로 사역을 갈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역을 마치고 오는 길에 차량이 고장나는 일이 있어서 차 한 대에 12명의 사람이 함께 타고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늦은 시간이지만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이 있었고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어서 감사하였습니다. 비전트립이 계속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재정과 차량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학생 양육 사역

협력하는 단체는 주중에 대학생 소규모 공동체를 열고 제자 양육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계속해서 복음에 대한 내용을 배우고 있는데 신입생들을 중심으로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이 감사합니다. 이 땅에는 귀신이 들리는 일이 종종 있는데 때론 문화 자체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귀신의 힘을 의지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학생들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믿고 자신을 내어주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한 것은 현지 사역자의 축기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일이 일어나고 간증을 하고자 하는 학생도 있다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양육 공동체에 열심히 참석하며 말씀 위에 믿음을 든든히 서가도록 기도해 주세요. 또한, 자신의 연약함과 소원함으로 자신을 귀신에게 내어주지 않도록 기도해 주세요.

성경 통독 작년

금식 기간 이후 시작된 연대기적 성경 읽기를 마칠 수 있음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2022년 금식기간 동안 시작된 한달 동안 신약을 읽는 것을 시작하여 지금까지 계속해서 성경 읽기를 계속하고 있음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지속하여 학생들과 성경 읽기를 함께 하기 위하여 방식을 바꾸어 매일 온라인으로 함께 소리를 내어 성경을 읽기로 했습니다. 사역 훈련 세미나때 성경 읽기의 중요성을 나누고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믿음 생활을 하면서 시간과 노력을 드리기가 쉽지 않은데 학생들이 성경 읽기를 사모하며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더불어 말씀이 학생들의 삶을 인도하며 주 뜻 안에서 미래의 시간을 계획하며 준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교육 사역

공동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영어 교육과 중학생 대상으로 한 한국어 교육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성장과 더불어 학생들이 사회에서 필요한 능력들도 채워갈 수 있기를 소망하며 가르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성실하게 공부하며 시간 사용에 지혜를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장학 사역

2월에는 학생들과 부모님들이 찬양과 음식으로 단체 기념 예배를 섬겨 주셨습니다. 그리고 3월 2일에 기도모임을 가졌고 제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양육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기독교인들도 있고 타종교인 분들도 계시는데 2주에 한번의 양육과 한 달에 한번씩 모이는 기도 모임을 통하여 계속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믿는 분들은 믿음이 성숙해지고 믿지 않은 분들은 복음의 씨앗이 심기고 자라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제가 제일 먼저 시작했던 A는 날마다 건강해지고 학교를 나갈 수는 없지만 개인적으로 공부하



며 성장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A를 사용하여 그 가족이 주님께로 반드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진로를 놓고 계속 기도 중인데 주님의 계획을 발견하며 학생들에게 가장 적합한 길로 인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소금과 빛이라는 우리의 정체성

<1분단상 138-3월호>

- 김대규 장로

예수님은 우리의 정체성(identity)을 산상수훈에서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마 5:13-16)이라고 말씀하셨다. 이는 하나님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도 실현시킬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이다. 자기부인의 삶이고, 십자가의 삶이기도 한 것이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은 도래할 하나님나라와 이미 도래한 하나님 나라(현존)사이에서 우리가 하나님나라의 백성으로 전 인격적으로 전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방법(실천적 윤리)을 제시한 것이다. 바로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다.

수많은 것들 중에 왜 굳이 상징적 비유로 우리를 소금과 빛이라고 했을까? 부패할 것들을 깨끗케 하고 맛을 내는 소금과 죄로 물든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생명의 빛 에는 희생과 섬김이 필수적이고 의무적이다. 이러한 희생과 섬김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아가페적 사랑에서 나온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그 크신 사랑을 따라 나의 빛이 수명을 다하고, 소금으로 녹아 없어져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우리의 본분을 다하는 것임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소금(헬. 할라스:αλας)은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고대시대에서는 금과같이 고 가품으로 부의 상징이었고 1세기 때 로마에서는 군인들의 월급이 되었다고 한다. 또한 구약에서도 소금은 언약을 상징하였다. 썩지 않는 언약 즉 영원한 언약이다. 유다 왕 아비야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대하 13:5)을 이스라엘 무리들에게 경각시켰다. 다윗과 그 자손에게 주신 나라라는 세상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이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소금 언약으로 보장되어 있는데 그 나라의 근간은 하나님의 뜻에 합한 다윗의 마음이었다.

우리가 소금이 되려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가 되어야 한다. 예수님이 빛과 소금이셨던 것처럼 우리가 참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르며 우리가 언약의 소금이 되어 믿음의 맛, 소망의



맛, 사랑의 맛을 내며 그의 나라와 뜻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셨다. 여기서 “세상”은 땅이 원어적이다. 땅은 마음을 가리킨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렘 17:9)와 같이 세상에 찌든 마음과 죄성에 가득한 사람의 마음에 생명력을 주어 부패와 죄로부터 벗어나 신성한 마음으로 회복하여 착한 행실의 맛을 변치않고 지속케 하는 것이다. 소금이 든든하게 하고 변질되지 않은 것처럼 말이다. 그리하여 다시는 부패치 않고 올바른 삶, 제 맛을 내는 자로 영원히 보존케 하는 것이 “나”라는 소금이다. 이리 될 때 세상은 하나님나라로 정화되게 되는 것이다.

빛(헬. 포스:φως)이다. 빛없이 아무 것도 있을 수가 없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시간과 공간을 있게 하신 후 먼저 빛을 창조하셨다. 빛이 어둠을 몰아내는 것은 그 존재자체로 밝혀 주기 때문이다. 성경에서 빛은 하나님, 예수님, 영광, 신성, 임재, 생명, 구원, 진리, 온전함, 선하심등 여러 가지로 설명되어진다.

빛은 하나님나라의 상징으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뜻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낸다. 주를 믿고 따르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고로 우리는 빛이다. 빛은 노력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다. 빛 자체이므로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어 빛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빛이신 예수님

을 따라 어둠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로 비추어 광명으로 회복시켜 빛 가운데에서 영원히 거하게 하는 것이다. 어두운 세상과 구별되어 빛으로 보존케 하는 것이 “빛”으로 “나”인 것이다.

“소금과 빛”은 상호보완적이다. 양자의 공통점은 소금은 녹아 없어지고 빛도 다하여 모두가 그 자체를 소모한다는 점이다. 또한 세상의 모든 영역에서 새롭게 맛을 내는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점이다. 끝까지 주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우리가 소금과 빛을 감당치 못한다면 아무 쓸데 없는 존재가 되고, 버림받게 되며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어버리는 부끄러운 존재가 되고 마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소금과 빛으로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처럼 작은 예수가 되어 착한 행실(칼로스:-하나님의 의도대로 선행하고 아름답게 이루는 것)로 하나님께 영광이 올러드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다.

간증문

CUBA AFA #10기

Alex Lee / G01

저희 가정모임 분들은 아니겠지만, 제가 스페인어를 할 줄 안다는 이유로 특히 이번 선교에서 저를 필요로 한다고 하셔서 사실 부담스럽기도 했습니다. 어느덧 목사님께서 10번째 쿠바 선교를 마치고 돌아오셨을 때, 저는 문득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쿠바 선교가 뭐길래, 항상 돌아오실 때마다 얼굴에 생기가 넘치실까? 뭐랄까... 빛이 나 보인다고 나 할까? 그리고 며칠 후, 제가 궁금해하는 것을 어떻게 아셨는지, 갑자기 쿠바미팅에 참석해 보라고 하셨습니다. 한 번만 참석해 보고, “정말 가기 싫으면 안 가도 된다”는 말씀에 저는 덩석 물었죠. 그리고 막상 미팅에 참석하고 나니,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느끼게 있다면 지난 8~9년 동안 교회에서 그렇게 필사적으로 피해 다닌 게 대체 무엇이었나 싶을 정도로 허무함이 밀려왔습니다.

첫째날, 먼저 온 미국 팀과 현지 팀이 저희를 반갑게 맞이해주었습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모두 웃음이 가득했고, 그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도착한 날부터 모든 프로그램이 시간표에 따라 꼼꼼히 짜여 있어서 다른 생각을 할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도착하고 나서부터 자기 전까지 각종 미팅과 교육과, 프로그램 등으로 바쁘게 움직였고, 그 덕분에 현장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둘째날, 현지 80명의 CANDIDATE을 마주하기 위해 모든 선교팀들이 새벽부터 바빠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현지인들이 나누는 대화를 듣게 되었는데, 그들 사이에서 “어떻게 여기를 알고 왔나?”라는 질문이 오갔고 “장난스럽게 밥 준다고 해서 왔다”는 말들이 나왔습니다. 또한 지나가다 들은 이야기에서는 서로 간의 험담이 오갔고 그리고 저기 미국에서 온 사람들은 쿠바 관광하러 온 것이라며, 순간적으로 깊은 실망과 동시에 내가 무슨 사역을 해

야 할지 혼란스러웠고 사람들의 걸모습만 보이기만 했습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식사 때마다 팀원들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며 서로의 생각과 마음을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정신없이 흘러가는 하루 중 유일하게 숨을 돌릴 수 있는 시간이었기에, 짧지만 소중한 대화들이 오갔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날, 목사님께서 성경 말씀 한 구절을 전해 주셨는데, 마치 주님께서 저를 가리키며 하신 말씀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 있던 혼란과 갈등이 말씀을 통해 비춰지는 듯했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려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말씀하신 성경 말씀 고린도 전서 13장 1-3절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쟁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셋째날, 아침부터 너무나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희 SET UP팀 리더의 아버님께서 매우 편찮으셔서 마지막 시간을 앞두고 계시다는 말씀을 전해 들었고, 이로 인해 그분께서는 미국으로 돌아가셔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분께 어떻게 위로의 말씀을 전해야 할지 막막했으며, 그저 기도 드린다는 말밖에는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리더가 빠지게 되더라도 사역 일정은 계속되어야 했기에, 저희 팀은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틈틈이 시간이 날 때마다 현지인들의 간증을 듣고 있던 중, 갑자기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선교 사역을 위해 일부는 며칠 동안 금식하며 준비했고, 어떤 분들은 불편한 몸을 이끌고도 헌신하기 위해 이곳에 오신분도 있고, 특히 아버지가 위중한 상황 속에서도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오셨던 분도 있었고,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모두가 기꺼이 희생하며 AFA에 참석하려 애쓰는 모습을 보며, 문득 “그동안 난 뭐였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단순히 봉사와 선교를 하러 온 것이 아니라, 주님



의 말씀에 의해 제 모습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현지인들의 간증과 삶을 통해, 내가 얼마나 좁은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얼마나 이기적이고 나만 생각했던 사람인지 깨닫게 되었고, 나의 편안함과 안전을 우선시했던 제 모습이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이곳으로 보내셔서 그 모든 것을 깨닫게 해주셨음을 깊이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넷째날, 프로그램이 끝날 무렵, 선교사님과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중, 마음 한편에 자리했던 질문을 선교사님께 여쭙었습니다. “여기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은혜를 받고 주님과 함께하려 하지만, 결국 일상으로 돌아가면 자유가 없는 나라에서 살아가야 하는데, 그게 너무 가엾고, 불쌍하지 않나요?” 선교사님은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비록 겉으로 보기에 상황이 어렵고 자유가 제한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 땅에서 함께 하고 계시고 또한 성도들의 믿음의 씨앗이 결국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환경에서도 역사하실 것**”이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제가 이곳에 온 이유를 분명히 알게 된 것 같았습니다. 단순히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닌,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이루실 뜻과 계획이 있음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하루하루의 경험은 저에게 큰 축복이었습니다. 일주일 간의 일정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체험하고, 나 또한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임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고 또한, 주님께서 얼마나 세밀하게 역사하시는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지만, 이곳에서 받은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려 합니다. 주님께서 제게 주신 기쁨과 은혜를 가슴에 새기고, 그것을 주변 사람들과 나누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제목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B국 강00 / 현00 선교사

1. 4개 지역의 한센환우촌에 모든 한센환우가 예수님을 영접할수 있도록 그리고 각지역에 교회가 설립될 수 있도록 (아주 장거리에 교회가 위치함)
2. 노숙자들도 모두 예수님을 영접하고 지속적인 음식과 임시 거주 지역을 마련할 수 있도록
3. 장기간 학교의 회비를 지불하지 못하여 학교에 갈 수 없는 학생들을 계속 지원할 수 있도록
4. 직원과 각지역 대표들이 성령과 사랑으로 하나되어 주님의 마음으로 모든 분들을 섬길 수 있도록
5. 영과 육이 더 강건할 수 있도록



E국 김 000 / 양00 선교사

1. 열방에 교회들과 연합사역을 위해 (필리핀, 이집트, 수단, 나이지리아, 미국, 한인 교회들)
 - 주님이 여러민족 리더분들과 교제를 허락하시고 그들과 함께 선교와 제자양육의 고민들을 나누게 하였습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함께 주님나라를 세워 나가는 꿈을 꿉니다.
2. 현재 섬기고 있는 필리핀 청년들이 귀한 주님의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 청년들 중 중동선교사가 꿈인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서포트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3. 현재 카이로에서 탐방하며, 알렉산드리아 사역을 위해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 단기팀을 위한 준비와 사역지 지역연구와, 만남의 축복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4. 신학교를 시작하였는데, 다음학기를 이어가기 위한 재정이 채워질수 있도록
 - 현재 어학원을 우선으로 하며 신학교를 병행하기에 학비가 생각보다 많이 듭니다. 주님께서서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필요한 공부를 더 할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마태복음 24:14)

인도네시아 기00 선교사

1. SOG(Serve Our Generation) 사역을 위해
 - 3월 30, 31일 사역 훈련 세미나를 위해
 - 대학생 공동체 제자 양육 사역을 통하여 학생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공동체 사역이 확장될 수 있도록 예배와 모임을 위한 공간이 예비될 수 있도록
2. 장학 사역을 위하여
 - 후원학생들과 가족들의 믿음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며 주위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 여전히 다른 믿음을 가진 학생과 가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자라날 수 있도록
 - 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하나님 뜻 가운데 진로를 정하고 학교 장학금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 장학금을 기다리고 있는 학생들 후원자 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1인 매월 3만원)
3. 교육 사역을 위하여
 - 학생들이 성실하고 기쁘게 학업에 임하고 학업 성취를 이룰 수 있도록
 -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섬기는 통로가 되도록
4. 인도네시아 부기스 마까사르 종족군을 위하여
5. 금식 기간에 주님을 진실로 찾는 자들이 주님을 만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6. 대학교 마지막 학기를 위하여
 - 논문, 교생실습, 봉사활동 등의 학교 생활 마지막 과제를 지혜롭게 수행할 수 있도록

기도제목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탄자니아 정현우 / 정슬기 선교사

1. 이음이의 수술 일정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잘 조율되고, 수술 전까지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2. 탄자니아 비자 발급이 순조롭게 이루어져 장기 체류에 문제가 없도록
3. 가정의 일상이 은혜 가운데 질서 있게 세워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4. 현지 목회자 세미나 이후, 목회자 부부들이 각자의 사역지에서 새 힘을 얻고 지역 교회들이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5. 스와힐리어 언어 훈련이 잘 진행되어 현지인들과의 깊은 소통과 복음 사역의 연결이 가능해지도록

늘 변함없이 기도와 사랑으로 함께해주시는 동역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연약함을 사용하셔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함께 걸어가는 이 길 위에 주님의 평강이 언제나 함께하시길 기도합니다.



선교부 광고

1. 단기 선교 일정과 모집 안내

- 인도 전도 폭발 (4/20-4/30)
담당 교역자: 이민 목사
문의: 신사무엘 집사 (626-216-9900)
- J국 교회개척 및 선교지 방명 (4/27-5/6)
S/L: 최요셉 선교사
리더: 이민희 집사 (213-268-8558)
문의: 조규진 안수집사 (562-922-0154)
- 터키 MEGL#15기 (4/20-5/1)
S/L: 한기홍 목사
렉터: 남상우 집사
문의: 이정호 안수집사 (213-500-7939)
- 브라질 AFA #17 (4/28-5/5)
S/L: 송종호 목사
렉터: 김요셉 집사
문의: 김수영 안수집사 (213-446-9514)
- 인도네시아 개척선교 및 신학교 사역 (5/9-5/17)
문의: 홍호철 장로 (562-900-4202)
총무: 이정호 집사 (213-500-7939)

- 필리핀 개척 전도 및 Grace Camp (5/27-6/2)
리더: 이창석 집사 (213-598-8845)
총무: 최혁운 간사 (909-241-0087)
- 가족과 함께하는 필리핀 VBS (6/1-6/8)
리더: Jackie Yu 전도사 (909-967-4626)
총무: 최혁운 간사 (909-241-0087)
- Fresno 단기선교 (6/9-7/2)
T/M: 매주 토 VC119
회비: 개인 400/가족 800
리더: 류영선 집사
문의: 최성근 집사 (858-204-2259)
- 쿠바 신학생/청소년 인카운터, VBS (6/29-7/6)
S/L: 설성훈 목사
OT: 4/14(월) 7pm, VC108
문의: 이병훈 집사 (714-353-1208)
- 케냐 의료선교 (7/6-7/16)
리더: 김영수 장로 (714-417-2001)
총무: 한 조셉 안수집사 (714-213-5033)

- 파라과이AFA#12 & 신학교 3기 졸업식 & 치과사역 (7/28-8/7)
S/L: 안영식 목사
렉터: 노우종 안수 집사
OT: 5/14(수) 7pm, VC205A

3. 의료선교국 주일 상담

매주 주일 10:00 - 11:15 AM
문의: 의료선교국

4. 이스라엘 회복과 부흥 및 주빌리 구국기도회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장소: WPC
문의: 현민정 목사 (714-732-2636)

5. 선교부 디보션 일정

매월 2, 4째주 주일 9:00 AM

6. 온라인 선교지 소식

WWW.YOUTUBE.COM/
@GMIMMISSION
WWW.FACEBOOK.COM/
GMIMMISSION

